

『黃帝內經靈樞』에서 사용된 ‘心’字의 용례 분석

The Analysis of Usage of the ‘心’ letter in 『HwangJeNaeGyeogYoungChu』

박재용

연수자연치유명상원(延壽自然治癒冥想院)

Jae-Yong Bak(worimpax@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黃帝內經素問』(이하『素問』)에서 사용된 ‘心’字의 후속 연구이다. 『黃帝內經靈樞』(이하『靈樞』)는 동양의학 뿐만 아니라 명상, 기공 수련, 요가, 수행과 관련된 기초 이론을 담고 있는 책으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靈樞』에서 사용된 ‘心’字의 용례를 분석하였다. ‘心’字는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冥想, 氣功, 修行과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어휘이다. ‘心’字는 동일한 형태로 유형의 심장과 무형의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만 그 의미의 구별이 가능한 단어이다. 따라서, 『靈樞』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心’字의 의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四部叢刊本の 『靈樞』를 저본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의하면 ‘心’字는 9가지 의미로 분류된다. 첫째, ‘心’字는 인간의 장부인 심장을 의미한다. 둘째, ‘心’字는 신체의 흥부를 한다. 셋째, ‘心’字는 감정을 의미한다. 넷째, ‘心’字는 ‘心包’를 의미한다. 다섯째, ‘心’字는 중심을 의미한다. 여섯째, ‘心’字는 이성적 사고를 의미한다. 일곱째, ‘心’字는 깨달음과 같은 초월적 개념을 의미한다. 여덟째, ‘心’字는 별자리를 의미한다. 아홉째, ‘心’字는 내부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결과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 『靈樞』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心’字의 용례 분석이 달라지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 중심어 : | 황제내경(黃帝內經) | 소문(素問) | 영추(靈樞) | ‘心’의 의미 | 명상(冥想) |

Abstract

This thesis is a follow-up study on HwangJeNaeGyeogSoMun(SoMun). Its purpose is the usage of ‘心’ letter used in HwangjenaegyogYoungChu(YoungChu). The original manuscript of this study was the Hu’s Gulin Sanctum of YoungChu. It was conducted by a literature review. Typically, the word ‘心’ means a tangible heart and an intangible mind in the same form.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YoungChu, which provides the basis for the basic ideology related to health care, meditation, GiGong training, yoga, practice and oriental medicin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 ‘心’ let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means human heart. Second, it means the human chest. Third, it means mind such as angry, joy sad, fear and so on. Fourth, it means the transcendent concept like spiritual enlightenment. Fifth, it means the pericardium. Sixth, it means logical thinking. Seventh, it means center or core, Eighth, it means the name of the constellation in the eastern sky of ancient Asia. Ninth, it can be classified into the inside.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YoungChu related to various categories. The limitation of it is that the classification of the ‘心’ letter may be different from the researchers’ perspective.

■ keyword : | HwangJeNaeGyeog | SoMun | YoungChu | Meaning of ‘心’ Letter | Meditation |

I. 서론

본 논고는 『黃帝內經素問』(이하『素問』)에서 사용된 ‘心’字的 용례 분석의 후속 연구로[1], 『黃帝內經靈樞』(이하, 『靈樞』)에 사용된 ‘心’字에 주목하여 그 내용과 활용에 관한 연구이다. ‘心’字는 인간의 내면적인 탐구와 관련 있는 명상, 기공 수련 요가, 참선 또는 수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문자이다.

『內經』은 『素問』과 『靈樞』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문헌이다. 이 중 『素問』이 이론적 개념에 치중되었다면, 『靈樞』는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된 문헌이다. 그동안 『靈樞』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靈樞』는 人文, 養生, 天文, 地理, 陰陽五行 사상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靈樞』는 導引, 鞍橋, 行氣, 調息, 飲食不節 등 양생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동양적인 심신수행법과 예방의학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들이다.

『黃帝內經』(이하『內經』)의 수많은 어휘 중에서 ‘心’字의 의미에 주목한 이유는 의미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문자이기 때문이다. 오장을 의미하는 ‘肝’, ‘心’, ‘脾’, ‘肺’, ‘腎’인데, 心臟을 제외한 문자는 모두 ‘肉’과 ‘月’의 자형을 가지고 있다. ‘肝’, ‘脾’, ‘肺’, ‘腎’은 육체를 상징하는 ‘肉’의[2] 변형된 ‘月’의 형태가 글자의 왼쪽 또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字形을 통해서 신체 臟器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心臟을 의미하는 ‘月+心’ 형태가 없다. 즉, ‘心’字는 문맥을 통해서 心臟과 마음을 구별해야 하는 어휘이다. 또한, 『素問』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心’字는 心臟과 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총 9개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1].

그러나 기존의 『內經』의 번역서와 연구들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창현, 백유상, 장우창[3]이 번역에 참여한 한의학 DB의 『素問』의 경우, 『靈蘭秘典論篇』의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을 ‘심(心)은 군주(君主)의 관(官)이니 신(神)의 밝음이 나오는 곳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解精微論篇』의 ‘故諺言曰心悲, 名曰志悲’의 경우, ‘심비(心悲)를 지비(志悲)’라고 번역하고 있다. 문맥상 전자의 ‘心’字는 心臟을 후자

의 ‘心’字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하게 ‘심(心)’으로 번역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靈樞』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素問』과 마찬가지로 ‘心’字의 용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心’字의 용례가 『素問』에서 분류된 내용 이외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약재의 경우 약재의 외피를 의미할 때는 ‘皮’자를, 외피를 제외한 안쪽 부분을 의미할 때 ‘心’자를 사용한다.

이 외에도, 『素問』은 天人合一說과 陰陽五行說 등 整體觀念을 바탕으로 병리학설과 실제치료에 대한 기록은 적은 편이나 『靈樞』는 鍼灸와 導引, 湯劑治療 등을 상술하고 있다[4]. 즉, 『素問』은 이론적 개념서에 해당한다면 『靈樞』는 실용적 개념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책의 구성내용도 차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心’字의 용례 또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靈樞』에서 사용된 ‘心’字의 용례를 분석하는 것은 『靈樞』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의학적인 분야에 치중된 『靈樞』의 연구 분야가 명상, 기공, 요가, 수행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內經』의 이론적 형성 시기는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현존하는 최고의 의학 문헌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素問』과 『靈樞』로 구성되어 있다. 『內經』의 내용은 陰陽, 五行, 五運六氣, 攝生, 臟象, 經絡, 病機, 診法, 辨證, 治法으로부터 針灸, 湯劑, 治療 등을 포괄한다[4]. 『內經』은 『素問』과 『靈樞』로 각 권 8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학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저자에 의해 전국 시대 말기부터 전한 초기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5].

『靈樞』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靈樞』속의 특정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근육에 관한 연구로 김민식[6], '液'에 관한 연구로 정성호[7], 오방색에 관한 것으로 노진우[8]의 연구가 있다. 김민식은 해부학적 특징을 통해 經筋의 명칭 의미와 『靈樞』에서 의미하는 '筋'의 의미를 足三陽經筋과 足三陰經筋을 현대적 의미로 분석하였다. 정성호는 「經脈」편에 기록되어 있는 '小腸主液'의 내용에 주목하여 液의 의미를 분류하고 臨床에서 小腸과 관련된 鍼灸治療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진우는 頭面部에 나타나는 五色의 部位와 變化를 통한 望診과 主治를 제시하였다.

둘째, 『靈樞』의 내용을 다른 문헌과 비교 연구한 것이 있다. 상한론의 太陽病과 少陰病의 내용을 비교한 연구로 성현호[9], 漏泄과 漏風을 비교한 류정아[10]의 연구가 있다. 성현호는 「經脈」편의 經脈病候가 『傷寒論』의 六經病證을 형성하고 체계화하는데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류정아는 「榮衛生會」의 漏泄과 「風論」의 漏風, 泄風에 관한 原文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症狀 및 病理機轉, 治法, 適應證 등을 분석하여 漏泄과 漏風의 본질을 陽明病의 自汗과 惡風證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의료적 측면에서 치료적 방안에 연구한 것이다. 穴位에 관한 김오영[11]의 연구, 瀉血療法에 대한 전학수의 연구[12], 혈위를 취하는 자세에 대한 김민식의 연구[13]가 있다. 김호영은 四象人의 乘降緩速에 관여하는 주요 경락 및 穴位를 통해 四象體質 病症과 관계가 있는 주요 혈자리를 제시하고 있다. 전학수는 『靈樞』에 기록된 瀉血療法와 관련된 道具, 刺法, 治療病證, 부작용 및 주의사항 등을 분석하여 현재 시대에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민식은 「經筋」편의 三陰三陽과 자세, '筋'의 의미, 그리고 각 經筋을 현대적인 해부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한의학에서 의미하는 기본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심리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 정신 작용의 원리를 단계별로 분석한 정창현의[14] 연구가 있다. 정창현은 「本神」편을 바탕으로 인체 정신기능의 발달과정을 정신기능의 진화 및 발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현대 심리학 및 뇌과학 지식과의 연계성을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번역의 내용에 관한 오류와 번역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정해진[15]과 정창현[16]의 연구가 있다. 정해진은 번

역자가 번역과정에서 참고한 문헌이나 번역방식이 학습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經脈」편의 手太陰肺經을 중심으로 한문 원문 띄어쓰기와 한글 번역의 표준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창현은 「九鍼十二原」의 '夫氣之在脈也' 구절을 「官鍼」편과 「終始」편의 "三刺"와 「壽夭剛柔」편의 '刺有三變'과의 관련성을 규명해서, 후세에 여러 특수 침법들의 바탕이 되는 '進退補瀉法'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靈樞』와 관련된 연구들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經絡과 穴位를 바탕으로 한 진단법과 치료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양의학의 근본이 되는 『靈樞』의 치료법과 진단법을 현대의학적 측면에서 규명하고 활용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2. 『內經』의 사상적 배경

『內經』은 중국 전통의학과 약 2,200년 전에 시작된 도교 이론의 전통과 생활양식을 포괄적으로 기록한 가장 오래된 서적으로 2011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17]. 이 책의 제목인 『內經』은 漢나라 劉欽이 편찬한 七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중국 後漢 초의 역사가 班固의 저서 漢書藝文志에 등장한다[18]. 『內經』은 한 사람에 의한 저작물이 아닌 수 세기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 의한 공동의 노력으로 완성된 결과물로 보고 있다. 『內經』의 주요 부분은 진나라(221-206 BC)와 한나라(206-220 BC) 시기에 보충 및 수정을 통해 전국 시대(475-221 BC)에 다양한 판본으로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다[19]. 『內經』은 전통 중국 의학(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이하 TCM)의 바탕이 되는 책으로 근본 사상적 개념들은 도교와 유교이다. 특히, 『內經』은 도교의 근원적인 형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환경,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의 영혼이 인간으로 존재하는데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20].

중국학계에서도 『內經』의 사상적 배경을 黃老思想으로 보고 있으며[21], 陰陽, 五行, 四時와 그 원천인 氣의 感應이 일정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 몸도 대우주의 구현체로서 일정한 질서 체계로 상응하여 움직인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內經』은 도교 경전으로 간주되어 道藏經(1445-1447) 속에 있다.

『內經』에서의 養生은 養神과 養形으로 나눌 수 있는데[22], 현대적인 관점에서 養生은 예방의학 차원에서 건강관리와 관련 있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명상, 수행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호흡 수련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因息乃行, 呼吸精氣, 呼吸定息 脈五動, 呼吸定息 氣行六寸, 呼吸不已, 呼吸微徐 등이 있다[23].

따라서, 『靈樞』의 내용은 의학 분야의 한 분야로 養生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의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써 의학 분야가 포함되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靈樞』 문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心'字的 의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靈樞』에서 사용된 '心'字的 용례를 분류하였으며, 연구의 저본은 四部叢刊本の 『靈樞』를 활용하였다. 四部叢刊本の 『靈樞』는 한의학 고전DB[3]를 통해 전자화 작업이 이루어진 판본으로 다양한 판본의 오탈자 교정을 거친 판본이기 『靈樞』의 내용을 분석하고 '心'字的 검색에 장점이 있다. '心'字的 개수는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 2020' 프로그램 검색기능을 통해 총 256자를 검색하였다. 이후 '心'字를 기준으로 전후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별로 분류하였다.

IV. '心'字的 용례 분석

1. 五臟 意味의 心

『素問』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靈樞』에서도 心臟으로 사용된 '心'字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素問』에서 五臟의 의미로 사용된 '心'字는 총 165개이다[1]. 『靈樞』에서는 총 256개의 '心'字중에서 129자의 문자가 心臟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心臟의 의미로 볼 수 있는 '心'字는 오행과 관련된 내용과 다른 장부들과 비교 분석하는 경우, 그리고 병증을 설명하는 경우, 대부분 心臟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내용들은 季節, 方向, 五惡, 五液, 五藏, 五主, 五脈, 五味, 五臭, 五聲, 五音, 五臟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病名, 病症과 관련해서는 厥心痛, 真心痛 과 같은 어휘들이다. 이 중 心痛의 '心'字는 흉부와 心臟의 볼 수 있는데, 12경락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雜病편의 心痛은 心臟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24].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取象比類의 방식으로 五行을 설명한 구절과 心臟과 관련된 病症을 설명한 '心'은 心臟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心'字가 心臟을 의미하는 문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五臟 意味의 心

편 명	내 용
本輸	心臟脉, 脉舍神, 心氣虛則悲, 實則笑不休 심장은 맥을 저장하고, 맥에는 신이 거한다. 심장의 기운이 허하면 슬퍼지고...
	心合小腸, 小腸者, 受盛之府 심장은 소장과 합해진다. 소장은 수성시부이다.
邪氣藏府病形	岐伯曰 愁憂恐懼則傷心, 形寒寒飲則傷肺, 以其兩寒相感, 中外皆傷, 故氣逆而上行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는 심장을 상하고, 형체가 차갑고, 차가운 음식은 폐를 상하고...
	心脉急甚者 爲瘵癯... 심장의 맥이 급심한 자는 계종이 되고...
官鍼	二日豹文刺, 豹文刺者, 左右前後鍼之, 中脉爲故, 以取經絡之血者, 此心之應也 ...경락의 혈을 취하고자 하는 자는 심장이 감응하는 곳에서 한다.
經脉	其支者, 復從胃, 別上膈, 注心中 그 가지는 다시 위장을 따라 갈라져 횡격막 위로 올라가 심장 속으로 들어간다
	心手少陰之脉, 起于心中, 出屬心系 수소음심장의 맥은 심장의 중심을 따라 기시해서 나와 심장계통에 속하고
	其支者, 從心系, 上挾咽, 繫目系 그 지맥은 심장의 계통을 따라 인후를 끼고 올라가 목계와 연결된다
	其直者, 復從心系, 却上肺, 下出腋下... 그 직행하는 경맥은 다시 심장 계통을 따라 폐정으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와 겨드랑이 아래에서...
	是主心所生病者, 目黃, 脅痛, 臍臂內後廉痛厥, 掌中熱痛 심장이 주가 되어서 발생하는 병은 눈이 노랗게 되고 엄구리가 아프며 팔의 안쪽 뒤 모서리가 통증과 차가운 느낌이 들고 손바닥 가운데에서 열이 나고 아프다.
	...入缺盆, 絡心 ...결분으로 들어가 심장과 연결되는데..
其支者, 從肺出, 絡心, 注胸中... 그 지맥은 폐장에서 나와 심장에 이어지고 흉중에서 주입되고...	
手少陰之別, 名曰通里, 去腕一寸半 別而上行, 循經入于心中, 繫舌本, 屬目系 수소음심장경이 갈라지는 곳은 통리혈이며...완관절의 1촌되는 곳에서 갈라져서 상행하여 소음경맥을 따라 심장으로 들어간다. 다시 상행하여 설근에 연결되고...	

	足太陽之正, 別入于臍中, 其一道下尻五寸, 別入于肛, 屬于膀胱, 散之腎, 循腎, 當心入散 ...항문으로 들어가 방광에 속하고 신장에서 흩어지고, 척추를 따라 순환하며, 심장에 들어가 산포되며...
經別	別者, 入季脅之間, 循 裏, 屬臍, 散之上肝貫心 갈라진 맥은 계협의 사이에서 안으로 돌고, 담장에 속하고, 흩어진다. 위로는 간장을 가고 심장을 꿰뚫고... 足陽明之正, 上至脾, 入于腹裏, 屬胃, 散之脾, 上通于心 족양명대장경의 경별은 위로 올라가 넓적다리 안으로 들어가 위장에 속하고, 비장에서 산포된다. 위로 통해서는 심장에 이르고... 手太陽之正, 指地別于肩解, 入腋走心, 繫小腸也 수태양소장의 경별은 견해에서 갈라져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가 심장으로 달리며, 소장에 연결된다. 手少陰之正, 別入于淵腋兩筋之間, 屬于心, 上走喉嚨, 出于面, 合目內眦, 此爲四合也 수소음심장경의 경별은 연맥혈에서 시작하여 양근의 사이에서 갈라져 들어가서 심장에 속한다. 위로는 후후로 달려가고...
經水	手少陰外合于澹水, 內屬于心 수소음심장경은 밖으로는 제수와 상합하고 안으로는 심장에 속한다
營氣	從臍注心中, 循手少陰出腋下臂, 注小指 合手太陽 비장을 따라 심장 중에 주입되며, 수소음심장경을 따라 겨드랑이에서... 從腎注心, 外散于胸中, 신장을 따라 심장에 주입하여 흉중에서 바깥으로 산포되고....
脉度	心氣通于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심장의 기운은 혀에서 통하며, 심장의 기운이 조화로운 즉 혀는 오미를 느끼게 된다.
四時氣	小腹控牽, 引腰脊, 上衝心, 邪在小腸者, 連牽系, 屬于脊, 貫肝肺, 絡心系 아래 배에서 고향이 당기고, 허리와 척추가 당기고 위로는 심장을 찌르고...
五邪	邪在心, 則病心痛喜悲, 時眩仆, 視有餘不足而調之其輸也 사기가 심장에 있으면 그 병은 심장을 아프게 하고, 자주 슬프며, 시시때때로 어지럽고...
熱病	苛幹鼻, 索皮于肺, 不得索之火, 火者心也 코에 작은 뾰루지 같은 것이 생기면 피부와 폐장을 찾아 치료하고 화를 찾으면 안된다. 심장은 화이기 때문이다 膚脹口乾, 寒汗出, 索脉于心, 不得索之水, 水者腎也 ...복부가 창만하고 입속이 마르며, 차가운 땀이 나면 맥과 심장을 치료하고 수에 속하는 신장을 치료해서는 안된다. 수는 신장이기 때문이다 癰瘡毛髮去, 索血于心, 不得索之水, 水者腎也 전질로 모발이 빠지면 혈과 심장을 치료하고 수에 속하는 신경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 수는 신장이기 때문이다
厥病	如從後觸其心, 僂僂者, 腎心痛也. 뒤에서 무스 물건으로 심장을 촉동(觸動)시키는 것 같고 허리와 등이 굽어지는 것은 신장과 심장에 통증이 있는 것이다 胃心痛也, 取之大都, 太白. 위장과 심장에 통증이 있으면 대도혈과 태백혈을 취하고... 脾心痛也, 取之然谷, 太谿. 비장과 심장에 통증이 있으면, 연곡혈과 태계혈을 취하고... 肝心痛也, 取之行間, 太衝. 간장과 심장에 통증이 있으면, 행간혈과 태충혈을 취하고... 肺心痛也, 取之魚際太淵. 폐장과 심장에 통증이 있으면, 어제와 태연혈을 취하고... 心腸痛, 攢作痛 腫聚, 往來上下行, 痛有休止, 腹熱喜渴涎出者, 是蛟蛭也 심장과 배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덩어리가 생겨 위 아래로 돌아다니고 통증이 그치지 않으면...

雜病	小腹滿大, 上走胃至心, 漸漸身時寒熱, 小便不利, 取足厥陰 아래배가 팽창하여 창만하고 위로 위장까지 달려올라가 심장에 이른다. 오실오실 추위 몸에서 때로 오한이 나며, 발열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心痛, 當九節刺之, 按已, 刺按之, 立已... 심장의 아플때에는 9절 아래에 침을 놓고, 손으로 누르면 즉시 낫고...
口問	歧伯曰 陽氣和利, 滿于心, 出于鼻, 故爲噎 ...양기가 화리해서 심장에 가득 차면 코로 나오기 때문에 재채기 하며... 歧伯曰 心者, 五藏六府之主也; 目者, 宗脈之所聚也, 上液之道也; 口鼻者, 氣之門戶也 ...심장은 오장육부의 주인이다. 눈은... 歧伯曰 憂思則心系急, 心系急則氣道約, 約則不利, 故太息以伸之 ...우울한 생각으로 심장 계통이 급박하게 되고, 심장 계통이 급박하게 되면 기운의 통로가 오그라 들고...
師傅	歧伯曰 五藏六府, 心爲之主, 缺盆爲之道, 髀骨有餘, 以候鬲肝. ...오장육부에서 심장은 주인이 된다. 결본혈은 경맥이 지나가는 길이 되고...
五亂	歧伯曰 氣在于心者, 取之手少陰心主之輸 ...기란(氣亂)한 것이 심장에 있으면 수소음심장경이 주관하는 경혈에서 취하고...
五癰津液別	五藏六府, 心爲之主, 耳爲之聽, 目爲之候, 肺爲之相, 肝爲之將, 脾胃之衛, 腎爲之主外 오장육부에서 심장은 주인이 되면, 귀는 들을 수 있으며, 눈으로는 외후를 살필 수 있고... 故五藏六府之津液, 盡上滲于目, 心悲氣并則心系急, 心系急則肺舉, 肺舉則液上溢 ...오장육부의 진액은...심장에 슬픈 기운이 있으면 심장 계통이 급박하고, 심장 계통이 급박하면 폐가 들려 올라가고...
五癰津液別(계속)	夫心系與肺, 不能常舉, 乍上乍下, 故效而立出矣. ...심장 계통과 함께 폐가 항상 들려있지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흐느끼면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五關五使	舌者, 心之官也 혀는 심장의 관청이다. 心病者, 舌卷短, 靨赤... 심장에 병이 있으면, 혀가 말라서 짧게 되고 광대뼈가 붉어지며...
陰陽繫日月	其於五藏也, 心爲陽中之太陽... 오장에서 심장은 양중의 태양이 되고...
病傳	歧伯曰 病先發于心, 一日而之肺, 三日而之肝, 五日而之脾, 三日不已, 死. 冬夜半, 夏日中 ...먼저 병이 심장에서 발생하면 1일이 지나면 폐장으로 전해지고, 3일이 지나면 간장에 전해지고... 病先發于胃, 五日而之腎, 三日而之腎膀胱, 五日而上之心, 二日不已, 死. 冬夜半, 夏日暎 ...먼저 병이 위장에서 발생하면... 5일이 지나면 위로는 심장에 전달된다. 만약 2일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죽게 되고... 病先發于腎, 三日而之腎膀胱, 三日而上之心, 三日而之小腸, 三日不已, 死. ...먼저 병이 신장에서 발생하면... 3일이 지나면 위로는 심장에 전달되고... 病先發于膀胱, 五日而之腎, 一日而之小腸, 一日而之心, 二日不已, 死. 冬雞鳴, 夏下哺. ...먼저 병이 방광에서 발생하면... 1일이 지나면 심장에 전달되고...
淫邪發夢	心氣盛, 則夢善美, 恐畏... ...심장의 기운이 왕성하면 잘 웃으며 두려워 하는 꿈을 꾸게 되고... 厥氣客于心, 則夢見丘山煙火 ...겉기가 심장에 객사로 침범하면 언덕과 산에서 불이 나는 꿈을 꾸고...

順氣一日分爲四時	心爲牡藏, 其色赤, 其時夏, 其日丙丁, 其音徵, 其味苦... 심장은 수컷에 해당하는 모퉁이다. 색깔은 적색, 계절은 여름, 날씨는 병정일, 음은 치음, 맛은 쓴맛이며...
五變	少俞答曰 此人薄皮膚, 而目堅固以深者, 長衝直揚, 其心剛, 剛則多怒... ...심장의 기운이 강하면 많이 화를 내고...
本藏	心小則安, 邪弗能傷易傷以憂; 心大則憂不能傷, 易傷于邪. 심장이 작으면 안정되어 사기가 손상시키지 못하지만, 쉽게 우울감에 상한다. 심장이 크면 우울감으로 손상되지는 않지만 쉽게 사기에 상처를 입는다.
	心高則滿于肺中, 愧而善忘, 難開以言; 心下則蔽外, 易傷于寒, 易恐以言. 심장이 높게 위치해 있으면 폐장 속이 가득 차서 답답하고 자주 건강증 생겨서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어렵게 된다. 심장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면 외부에 노출되어 쉽게 한사에 손상되며 말에 의해서도 쉽게 두려움을...
	心堅則藏安守固; 心脆則善病消瘴熱中 심장이 견고하면 장부가 안정되게 잘 고수된다. 심장이 취약하면 쉽게 소단열증의 병이 들게 되고...
	心端正則和利難傷; 心偏傾則操持不一, 無守司也 심장이 단정되면 조화롭고 손조롭기 때문에 쉽게 병에 의해 손상되기 어렵다. 심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지조가 한결같지 않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된다.
	岐伯曰 赤色小理者, 心小; 粗理者, 心大... ...피부가 적색에 주리가 적은 자는 심장이 작고, 주리가 거친 사람은 심장이 크다...
	無髒軒者, 心高; 髒軒小短學者, 心下... 갈우가 없는 사람은 심장이 높게 위치해 있고, 갈우가 작으며 앞으로 들린 사람은 심장이 아래 쪽에 위치해...
	髒軒長者, 心下堅; 髒軒弱以小薄者, 心脆 갈우가 긴 사람은 심장이 견고하고, 갈우가 약하고 작고 얇은 사람은 심장이 취약하고...
	髒軒直下不學者, 心端正; 髒軒倚一者, 心偏傾也 갈우가 곧게 뻗어 들리지 않은 사람은 심장이 단정하고, 갈우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심장이 치우쳐져 있는...
	心合小腸, 小腸者, 脉其應... 심장과 소장은 서로 상합하는 관계이다. 소장의 맥이 심장에 감응하여...
	心應脉, 皮厚者, 脉厚, 脉厚者, 小腸厚; 皮薄者, 脉薄, 脉薄者, 小腸薄 심장은 맥과 감응한다. 피부가 후박한 것은 맥이 후박한 것이고, 맥이 후박하게 되면 소장이 후박한 것이며...
關上者, 咽喉也; 關中者, 肺也; 下極者, 心也 귓상은 인후를 의미한다. 귓중은 폐장을 의미한다. 하극은 심장을 의미한다	
腎乘心, 心先病, 腎爲應, 色當如是 신장이 심장을 이기는 관계에서는 심장에 먼저 병이 들면, 신장이 감응하게 되는데...	
以五色命藏, 靑爲肝, 赤爲心, 白爲肺, 黃爲脾, 黑爲腎 오색은 그 성질에 따라 저장된다. 청색은 간장에 저장되고, 적색은 심장에 저장되고, 백색은 폐장에 저장되고...	
肝合筋, 心合脉, 肺合皮, 脾合肉, 腎合骨也 간장은 근육과 상통하여 합해진다. 심장은 맥과 상통하여 합하고...	
三焦理橫, 其心端直, 其肝大以堅, 其臍滿以傍... 삼초의 주리가 황으로 나오으면 심장은 단정하고 곧게 되고, 간장은 크고 견고하게 되고, 쓸개는 담즙이 가득차게 되며...	
背膂	心膂在五焦之間... 심장의 수혈은 5번째 척추의 양쪽에 있는데...
天年	岐伯曰 血氣已和, 榮衛已通, 五藏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 ...월기가 조화롭고, 영기와 위기가 통하고, 오장이 모두 성하게 된

	다. 정신과 신기가 심장에 모두 갖추어져 머물고 혼백이 갖추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六十歲, 心氣始衰, 苦憂悲, 血氣懈惰, 故好臥 60세에는 심장의 기운이 노쇠하기 시작하여 고단하고 슬퍼하며 혈액과 기운의 운행이 느려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은 놀기를 좋아하게 된다.
	穀味苦, 先走心 곡식의 쓴맛은 먼저 심장으로 달려간다.
五味	心病者, 宜食麥羊肉杏棗... 심장에 병이 있는 자는 마땅히 찹깨, 개고기, 오얏, 부추를 먹어야 하고...
	五禁, 肝病禁辛, 心病禁鹹, 脾病禁酸, 腎病禁甘, 肺病禁苦 ...간장에 병이 있는 자는 매운 맛을 금하고, 심장에 병이 있는 자는 짠맛을 금하고, 비장의 병이 있는 자는...
	心色赤, 宜食酸, 大肉麻李韭皆酸 심장의 색은 적색이다. 마땅히 상큼한(酸) 맛을 먹어야 하는데 개고기, 찹깨, 오얏, 부추가 모두 산미이며...
	辛走氣, 多食之, 令人洞心... 매운 맛은 기로 달려가는데, 많이 먹으면 심장이 공허한 동심(洞心)이 되는 되는데...
	甘走肉, 多食之, 令人悅心... 단 맛은 살로 간다. 단 맛을 많이 먹으면 심장을 답답하게 만든다...
五味論	黃帝曰 辛走氣, 多食之, 令人洞心, 何也 ...매운 맛은 기로 달려간다. 매운 맛을 많이 먹으면 심장이 공허한 동심(洞心)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董非之氣薰之, 營衛之氣不時受之, 久留心下, 故洞心 생강과 부추의 기운은 훈증하게 되면 영기와 위기의 기운이 수시로 받아 들이지 못하게 된다. 오랫동안 심장 아래에 머물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장이 공허한 동심이 되고...
	黃帝曰 甘走肉, 多食之, 令人悅心, 何也 ...단 맛은 살로 간는데 많이 먹으면 심장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胃柔則緩, 緩則蟲動, 蟲動則令人悅心... ...위장이 유연하면 이완되고 이완되면 기생충이 움직이게 된다. 기생충이 움직이면 심장이 답답하게 되는데...
五音五味	上徵與右微同, 穀麥, 畜羊, 果杏, 手少陰藏心, 色赤, 味苦, 時夏... 수소음은 심장에 저장된다. 색은 적색이고, 맛은 쓴 맛이며, 시간 상으로는 여름에 해당하고...
百病始生	岐伯曰 憂思傷心, 重寒傷肺, 忿怒傷肝; 醉以入房, 汗出當風傷脾; 用力過度, 若入房汗出浴, 則傷腎 ...우울함과 번민은 심장을 상한다. 심한 한사는 폐장을 상하게 되는데...
行鍼	心肺之藏氣有餘, 陽氣滯盛而揚, 故神動而氣先行 심장과 폐장에 저장된 기운이 충분히 여유로우면, 양기는 부드럽고 왕성하여 드러나고...
	伯高曰 五穀入于胃也, 其糟粕津液宗氣, 分爲三隧, 故宗氣積于胸中, 出于喉嚨, 以貫心脉, 而行呼吸焉 ...오곡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총기가 흉중에 쌓이고, 인후를 따라 나와서, 심장의 맥을 채우게 되는데...
	留兩骨之會, 上入於胸中, 內絡於心脉 두 뼈 사이가 만나는 곳에서 서로 합해진다. 위로 올라가서 흉중에 들어가고, 안으로는 심장의 경맥에 결락하게...
邪客	岐伯曰 少陰, 心脉也 기백이 말하기를, 소음은 심장의 맥을 의미한다. 心者, 五藏六府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藏堅固, 邪弗能容也 심장은 오장육부의 대 주인이다. 정과 신이 그곳에 머문다. 그곳에 저장된 것이 단단하고 견고하면...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객사가 심장을 손상하게 된다. 심장이 손상되어서 신이 떠나고, 신이 떠나면 죽는다.

	...故諸邪之在於心者 ...그러므로, 모든 사기가 심장에 있는 자는... ...皆在於心之包絡 모든 것이 심장의 포락에 있는 것이니... 岐伯曰 肺心有邪, 其氣留於兩肘 ...폐장과 심장에 사기가 있으면, 그 기운은 양쪽 팔꿈치에 머무르게 되는데...
論疾診尺	目赤色者, 病在心, 白在肺, 青在肝, 黃在脾, 黑在腎 눈이 적색인 사람은 심장에 병이 있는 자이다. 눈이 백색은 폐장에 병이 있는 자이며, 눈이 청색은 간장에...
	其始入於陰, 當從足少陰注於腎, 腎注於心, 心注於肺, 肺注於肝, 肝注於脾, 脾復注於腎爲周 ...당연히, 족소음은 신장으로부터 관주된다. 신장은 심장으로부터 관주되고, 심장은 폐로부터 관주되고...
	風從南方來, 名曰大瀾風, 其傷人也, 內舍於心, 外在於脈, 氣主熱 ...대약풍이라고 한다. 대약풍은 사람을 손상시키는데 안으로는 심장에 머물고, 밖으로는 맥에 손상을 주며...
	五藏氣, 心主噫, 肺主欬, 肝主語, 脾主吞, 腎主欠 오장의 기운은 심장에서는 트림을 주관한다. 폐장에서는 기침(欬), 간장에서는 언어, 비장에서는 신을 나는 것, 신장에서는 하품을 주관한다...
	五味, 酸入肝, 辛入肺, 苦入心, 甘入脾, 鹹入腎, 淡入胃, 是謂五味 오미에서 상극한 맛은 간장으로 들어간다. 매운 맛은 폐장으로 들어가고, 쓴 맛은 심장으로 들어가고...
衛氣	五并, 精氣并肝則憂, 并心則喜, 并肺則悲, 并腎則恐, 并脾則畏, 是謂五精之氣, 并於藏也 오병은 병합한다는 의미이다. 정과 기가 간장과 병합하면 우울해진다. 심장과 병합하면 기쁨이 되고, 폐장과 병합하면...
	五惡, 肝惡風, 心惡熱, 肺惡寒, 腎惡燥, 脾惡濕, 此五藏之所惡也 오악은 싫어한다는 것이다. 간장은 풍을 싫어하며, 심장은 열을 싫어하며, 폐장은 한을 싫어하며...
	五液, 心主汗, 肝主泣, 肺主涕, 腎主唾, 脾主涎, 此五液所出也 오액은 액체를 의미한다. 심장은 땀, 간장은 눈물, 폐장은 콧물, 신장은...
	五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精志也 오장은 저장한다는 의미이다. 심장은 신을 저장한다. 폐는 백을 저장하고, 간장은 혼을 저장하고, 비장은...
	五主, 心主脈, 肺主皮, 肝主筋, 脾主肌, 腎主骨 오주는 주관한다는 의미이다. 심장은 맥을 주관하고, 폐장은 피부를 주관하고, 간장은 근육을 주관하고...
大惑論	目者, 心使也, 心者, 神之舍也, 故神精亂而不轉 눈은 심장의 부림을 받고, 심장은 신이 머무는 곳이다... 岐伯曰 上氣不足, 下氣有餘, 腸胃實而心肺虛, 虛則營衛留於下, 久之不以時上, 故善忘也. 기운이 위에서는 부족하고, 아래에서는 충분하면, 장과 위장은 충실해지지만 심장과 폐장은 허약해지게 된다.

2. 胸部 意味의 心

신체의 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胸府의 의미로 사용된 '心'이다. 『素問』에서 胸部的 의미로 사용된 '心'字는 총 82개이다[1]. 『靈樞』에서는 총 256개의 '心'字중에서 53개의 문자를 흉부로 볼 수 있다.

문맥적으로 '心'字를 胸部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주로, 병증으로 인한 결과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단어에는

心滿, 心腹, 心煩, 煩心, 心懸, 心痛, 心熱, 心寒, 心澹 등이 있다. 신체를 공간적으로 분류하는 경우, 心臟을 기준으로 위치를 설명하는 心下, 心脇, 心膈 등의 어휘와 胸府로 유의어로 사용되는 膻中과 연관된 내용의 '心'字는 胸府를 의미한다.

즉, '心'字가 통증의 부위와 관련되어 있거나, 心臟을 기준으로 공간적인 분류와 관련된 문맥에서 사용된 경우는 흉부를 의미한다. '心'字가 胸府를 의미하는 문장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胸部 意味의 心

편 명	내 용
	...微急爲心痛引背, 食不下... ...미미하게 급하면 가슴에 통증이 있고, 척추가 땡기게 된다. 먹은 것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며...
	...緩甚爲狂笑, 微緩爲伏笑, 在心上下行, 時唾血 매우 완만하면 미쳐서 웃게 된다. 약간 완만하면 복량이 가슴 아래에 있게 되는데, 위 아래로 움직이고...
	大甚爲喉吟, 微大爲心痺引背, 善淚出... 매우 대하면 목구멍 속에 걸리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약간 대하면 가슴의 통증과 비증으로 척추가 땡기면서...
邪氣藏府病形	...滑甚爲善風, 微滑爲心疝引臍, 小腹鳴... 아주 활하면 자주 목이 마른다. 약간 활하면 심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배꼽이 땡기고...
	胃病者, 腹脹脹, 胃脘當心而痛, 上肢兩脅, 膈咽不通, 食飲不下, 取之三里也 위장의 병은 복부가 팽만하고 창만하며 위완부와 가슴에 통증이 있다. 위로는 양쪽 옆구리를 떠받치며 가슴과 목구멍이 통하지 않게 되는데, 음식이 내려가지 않으며...
	臆病者, 善太息, 口苦, 嘔濁汁, 心下澹澹, 恐人將捕之, 噎中咿咿然, 數唾 담장에 병이 있으면, 한숨을 자주 쉬고 입이 쓰며, 목은 가래를 토하게 된다. 가슴 아래가 두근두근하여 타인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壽夭剛柔	陰陽俱動, 乍有形乍無形, 加以煩心, 命曰陰勝其陽, 此謂不表不裏, 其形不久. 음과 양이 모두 움직여서 갑자기 유형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가슴에서 열이 나는 경우는 음병이 양병보다 심한 것이다. 이것은 표리의 음양이 모두 손상된 것을 의미하는데,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
官鍼	一日偶刺, 偶刺者, 以手直心若背, 直痛所, 一刺前一刺後, 以治心癢, 刺此者傍鍼之也 우자법은 손으로 가슴과 등에서 통증이 있는 곳에 찾는 방법이다. 하나는 가슴에, 하나는 등에 자침한다. 이 방법은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아픈 것을 치료하는데..
終始	厥陰終者, 中熱陰乾, 喜溺心煩, 甚則舌卷, 卵上縮而終矣. 끝없는 맥기가 끊어질 때는 속에서 열이 나고 목구멍이 마르며 자주 소변을 보고 가슴 속은 번란하다. 병세가 심하면 혀가 말리고 음낭과 고환이 위로 수축되면서 죽게 된다
	是主肺所生病者, 欬上氣, 喘渴, 煩心, 胸滿, 膈臂內前廉痛厥, 掌中熱 시동병으로 폐장에 병이 있으면, 기운이 올라가서 천식과 해수,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난다. 결본 부위가 아프며...
經脉	是主脾所生病者舌本痛體不能動搖食不下煩心, 心下急痛... 시동병으로 비장에 병이 있으면, 혀의 부리에 통증이 있고...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고 가슴 아래 부위가 급박하고 통증이 있으며...

	<p>是動則病噦乾, 心痛, 渴而欲飲, 是為腎厥 시동병으로 인두가 마르고, 가슴에 통증이 있고, 갈증이 나서 물이 먹고 싶으며...</p> <p>是主腎所生病者, 口熱, 舌乾, 咽腫, 上氣, 噦乾及痛, 煩心, 心痛, 黃疸, 臍澀 시동병으로 신장에 병이 있으면 구열, 설간, 인종, 상기, 익간 및 익통, 번심, 심통으로 가슴 부위에서 열이 나고 통증이 있으며...</p> <p>是主脈所生病者, 煩心, 心痛, 掌中熱... 시동병으로 맥에 병이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으며, 손바닥에 열이 나고...</p> <p>是動則病口苦, 善太息, 心脅痛, 不能轉側; 甚則面微有塵, 體無膏澤, 足外反熱, 是為陽厥 시동병으로 입이 쓰고, 한숨을 자주 쉬고, 가슴과 옆구리에 통증이 있고 돌아눕지 못하고...</p> <p>...實則心痛, 虛則為頭強, 取之兩筋間也 ...실하면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다. 허하면 머리가 뻐뻐해지는데, 이때는 양쪽 힘줄 사이를 취하고...</p>
經水	<p>手少陰之筋起于小指之內側...其病內急心承伏梁, 下為肘綱 수소음경근병으로... 가슴안이 구급하고 가슴 아래에 복량이 있으며 상박 팔꿈치의 경근에서 병이 있으면...</p>
寒熱病	<p>骨痺, 掣節不用而痛, 汗注煩心, 取三陰之經補之 골비증으로 모든 관절의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아프며 땀이 줄줄 흐르고 가슴이 답답하면 태음, 소음,厥음...</p>
癲狂	<p>癲疾始生, 先不樂, 頭重痛, 視舉目赤, 甚作極已而煩心 전질이 발작하려고 할 때에... 그 발작이 심하게 일어났다가 그치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마를 살피서 발작을...</p>
熱病	<p>心疝暴痛, 取足太陰厥陰, 盡刺去其血絡 심산으로 갑자기 가슴이 아플 때에는 족태음경과 족厥음경을 취한다. 두 경맥의 혈락을 모두 사혈하여...</p> <p>喉痺舌卷, 口中乾, 煩心, 心痛, 臂內廉痛, 不可及頭, 取手小指次指爪甲下, 去端如韭葉 인후가 붓고 막히며 혀가 말리며 입속이 마른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팔의 내측 모서리가 아파 머리까지...</p>
厥病	<p>...厥頭痛, 面若腫起而煩心, 取之足陽明太陰厥... 경기(經氣)가 위로 치솟아 생긴 두통인 곁두통은, 얼굴이 부어오르고 가슴이 답답한데 죽양명위장과...</p> <p>...厥心痛, 與背相控, 善噦... 곁심통으로 가슴이 아픈 것은, 척추가 서로 땡기며...</p> <p>...厥心痛, 腹脹, 胸滿, 心尤痛甚... 곁심통으로 가슴이 아픈 경우, 배가 더부룩하고, 흉부가 그득하고, 가슴 부위에 통증이 심하면...</p> <p>...厥心痛, 痛如以錐鍼刺其心, 心痛甚者 곁심통으로 가슴이 아픈 경우, 송곳으로 명치끝을 찌르는 것 같다. 통증이 가슴 부위에서 극렬한 것은...</p> <p>...厥心痛, 色蒼蒼如死狀, 終日不得太息... 곁심통으로 가슴이 아픈 경우, 얼굴색이 죽은 사람처럼 푸르고 하루 종일 깊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은...</p> <p>...厥心痛, 臥若徒居心痛間, 動作痛益甚, 色不變 곁심통으로 가슴이 아픈 경우, 누워있거나 혹은 한가롭게 조용히 있으면 가슴의 통증이 좀 나아지고 동작을 하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얼굴색에 변화가 없다.</p> <p>...真心痛, 手足清至節, 心痛甚, 旦發夕死, 夕發旦死 진심통으로 가슴이 아픈 것은, 손발이 찬 것이 주술관절까지 올라오면 가슴 부위에 통증이 심해진다. 아침에 발작하면 저녁에 죽고 저녁에 발작하면...</p> <p>...心痛不可刺者, 中有盛聚, 不可取于腋... 가슴의 통증에 있는데 자침을 해서 안 되는 경우는 그 속에 적취가 있는 것으로 수혈을 취해서는 안되며...</p> <p>...股脛淫澀, 煩心頭痛, 時暈時快, 眩已汗出, ...상퇴와 하퇴까지 퍼지며 가슴에서 답답하고 열이 난다. 머리가 아프고 때로 구역질이 나는데 시시때때로 가슴이 답답하며 어지러운 것이 끝나면 땀이 나고 오래되면...</p>

病本	<p>...先中滿而後煩心者, 治其本... ...먼저 가운데가 그득하고 나중에 가슴이 열이 나고 답답한 자는 그 근본을 치료하고...</p> <p>心痛引腰脊, 欲嘔, 取足少陰 가슴의 통증과 허리와 척추가 땡기고 구토를 하면, 족소음신장경에서 취하고...</p> <p>心痛, 腹脹, 善齋然大便秘, 取足太陰 가슴의 통증과 복부가 창만하며 대변이 막혀서 잘 나오지 않으면 족태음비장경을 취하고...</p> <p>心痛, 引背, 不得息, 刺足少陰, 不已, 取手少陽 가슴의 통증과 척추가 땡기고 숨을 쉬기 어려우면 족소음신장경에서 자침하고...</p> <p>心痛引小腹滿, 上下無常處, 便澀難, 刺足厥陰 가슴의 통증과 아랫배가 그득하고 통증이 오르내려 고정된 곳이 없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족厥음간경을 자침하고...</p> <p>心痛, 但短氣不足以息, 刺手太陰 가슴의 통증과 호흡이 짧아 숨쉬기가 곤란하면 수태음폐경에 자침하고...</p>
雜病	<p>...下氣不足, 則乃為痿厥心忪 하기가 부족하면 다리가 무력하고 차가우며 가슴이 답답하고...</p> <p>痿厥心忪, 刺足大指間上二寸留之, 一日足外踝下留之 위궤로 가슴이 답답한 것은 엄지발가락 사이 2촌 위에 있는 태충혈을 자침하여 유침시키고...</p>
口問	<p>岐伯曰 夫心脈者, 煩心短氣, 臥不安... 기백이 말하길 심장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짧으며 편히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데...</p>
脈論	<p>二月丑不風, 民多心腹病... 2월의 축일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슴과 배에 병이 생긴다...</p>
歲露	<p>陽留大發, 消脹留項, 名曰腦癰, 其色不樂, 項痛而如刺以鍼, 煩心者, 死不可治 ...뇌를 식히며 목덜미에 머물러 있는 것을 뇌삭이라고 한다. 그 색이 좋지 못하며 목덜미가 침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며,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경우에는 죽거나...</p>

3. 感情 意味의 心

'心'字는 감정을 의미하는 무형의 마음을 의미한다. 서양적인 관점에서는 마음을 두뇌와 관련지어 생각하지만, 동양에서는 마음을 중단전과 연관이 깊다고 보고 있다. 『素問』에서 感情의 의미로 사용된 '心'字는 총 15개 정도이다[1].

『靈樞』에서 '心'字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33개이다. 문맥적으로 '心'字를 감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素問』의 내용과 유사하다.

喜怒哀樂과 관련된 내용으로 心亂, 心懸, 惕惕然, 弛緩, 私心, 愚昧, 貪瞋癡, 悲哀 등과 함께 사용된 문장에서는 '心'字는 감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心'이 安, 心私, 亂, 懸, 愚, 悲 등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감정을 의미하는 마음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陰陽二十五人」, 「官能」, 「本神」의 惕惕, 愴愴, 安心, 心悅, 懸心, 邪心, 惡心, 怒喜思悲恐驚憂, 泣

과 같은 어휘들과 ‘心’字가 함께 사용된 경우이다. ‘心’字가 感情을 의미하는 문장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感情 意味의 心

편 명	내 용
小鍼解	...調氣在於終始一者, 持心也 기운을 고르게 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하나로 지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本神	何謂德氣生精神魂魄心意志思慮? 請問其故 소위 덕기가 정, 신, 혼, 백, 마음, 의지, 생각, 지혜, 사고를 만들어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本神 (계속)	所以任物者, 謂之心 소위 사물에 임해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心有所憶, 謂之意 마음이 생각에 가 있는 것을 의지라고 한다. 心恍惚慮則傷神, 神傷則恐懼自失, 破腦脫肉, 毛悴色天, 死於冬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생각이 많으면 신을 상하게 한다. 신이 상하면 두려워서 멍하게 되고 기육이 빠지며 모발이...
經脉	病至則惡人與火, 聞木聲則惕然而驚, 心欲動, 獨閉戶塞牖而處 병이 들어 사람과 불을 싫어하고, 목을 들으면 두려워하면서 놀라 마음이 두근거리며 땀. 문을 닫고 혼자 있으려 하며...
	坐而欲起, 目眩暈如無所見, 心如懸若飢狀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눈이 침침하면서 보이지 않고 마음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불안하거나...
	氣不足則善恐, 心惕息如人將捕之, 是為骨厥 기운이 부족하면 자주 공포감을 느끼고, 누군가 자기를 잡으려 올오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다. 이것을 골결(骨厥)이라 한다.
四時氣	脈腫, 甚則 脅支滿, 心中愴愴大動, 面赤, 目黃, 喜笑不休 팔꿈치가 당기며 겨드랑이가 붓고 심하면 흉협이 창만해진다. 가슴 속이 크게 뛰고, 얼굴은 붉어지고, 눈이 황색이고, 기뻐하고 웃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善嘔, 噎有苦, 長太息, 心中愴愴, 恐人將捕之 ...자주 구토하고, 입은 쓰고 한숨을 크게 친다. 마음이 두근두근하여 다른 사람이 정차 자기를 잡으려 오는 것같이 두려워하며...
厥病	厥頭痛, 頭脈痛, 心悲善泣, 視頭動脈反盛者, 刺盡去血, 後調足厥陰 귓두통으로 머리와 맥을 따라서 아프고 마음이 슬퍼서 자주 눈물을 흘리면, 머리에서 맥이 움직이는 것이 특별하게 왕성한 곳을 찾아 모두 사혈시키고, 그 다음에는 족결을 경을 조화롭게 한다.
口問	故悲哀愁憂則心動, 心動則五藏六府皆搖, 搖則宗脉感, 宗脉感則液道開, 液道開, 故泣涕出焉 비애와 슬픔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이 때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오장육부가 모두 흔들리고...
	...下氣不足, 則乃為痿厥心忪 ...하기가 부족하면 다리가 무력하고 차가우며 마음이 답답하게 되는데...
痿厥心忪	刺足大指間上二寸留之, 一日足外踝下留之 위겔로 마음이 답답한 것은 엄지발가락 사이 2촌 위에 있는 태충혈을 자침하고 유침시킨다. 일설에는 족외과 아래에 있는 곤륜혈을 자침하고 유침하는데...
	胃中熱則消穀, 令人懸心善飢, 臍以上皮熱 위장에 열이 있으면 수곡을 소화시킨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소화가 잘되면 자주 배가 고파진다. 배꼽 아래의 피부에 열이 있고...
五亂	故氣亂於心, 則煩心密嘔, 俛首靜伏 따라서, 기운이 번란하게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열이 난다. 말을 하지 않고 묵언하며 머리를 숙이고 고요히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 올려고 하는데...
本藏	五藏皆小者, 少病, 苦樵心, 大愁憂

	오장이 모두 작은 자는 병이 잘 걸리지 않지만 마음을 꿋하고 크게 근심 걱정하는데...
	五藏皆端正者, 和利得人心 오장이 모두 단정한 사람은 조화롭고 이로운 자로 타인의 마음을 얻게 되고...
	五藏皆偏傾者, 邪心而善盜, 不可以爲人平, 反覆言語也 오장이 모두 치우친 사람은 삿된 마음이 있어 도적질을 잘하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고 말을 뒤집고...
陰陽二十五人	好有才, 勞心 少力, 多憂勞於事 재간이 있으며 마음을 많이 쓴다. 힘이 약하여 하는 일에 근심이 많고...
	其爲人赤色, 廣臍, 脫面小頭, 好背肩膊腹, 小手足, 行安地, 疾心, 行搖, 肩背肉滿 ...손발이 작고 걸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급하여 움직일 때 몸이 흔들린다. 어깨와 등의 살이 충실하며 기가..
	有氣輕財, 少信, 多慮, 見事明, 好顏, 急心, 不壽暴死 ...재물을 가볍게 생각하고 믿음이 적다. 염려가 많고 하는 말은 일은 분명하게 한다. 얼굴이 좋고 마음이 급하며...
通天	...安心, 好利人, 不喜權勢, 善附人也 마음이 편안하고 남을 이롭게 하기 좋아한다. 권세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잘 따르며...
	...身清廉, 急心, 靜悍, 善爲吏 몸이 청렴하며 마음이 급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정된다. 관리가 되기에 적합하며
	黃帝曰 願略聞其意, 有賈人聖人, 心能備而行之乎 ...사람에는 현인과 성인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모두 이러한 것을 갖추고 실천하는데...
官能	少師曰 太陰之人, 貪而不仁, 下齋濕濕, 好內而惡出, 心和而不發 ...태음인은...반이들이기를 좋아하나 내능기를 싫어한다. 마음이 온화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며...
	少陰之人, 小貪而賊心, 見人有亡, 常若有得, 好傷好害 소음인은 탐욕이 적으나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항상 얻은 것이 있는 듯하며, 타인을 상처와 손해 입히기를 좋아하고...
大感論	...見人有榮, 乃反惱怒, 心疾而無惡, 此少陰之人也 ...타인의 영화로움을 보면 시기하고 화를 낸다. 마음은 타인을 시기 질투하고 은혜를 모르는데 소음인에 해당된다.
	必端以正, 安以靜, 堅心無解, 欲微以留, 氣下而疾出之, 推其皮, 蓋其外門, 真氣乃存 ...반드시 단정하고 안정되며 마음이 견고하고 의심이 없어야 한다. 세밀하게 유침하고...
大感論	語徐而安靜, 手巧而心審諦者, 可使行鍼艾, 理血氣而調諸逆順, 察陰陽而兼諸方 말은 늦으면서 안정되어 있고 손재주가 뛰어나며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에게는 침과 뜸을 시술하게 한다. 혈기가...
	緩節柔筋而心和調者, 可使導引行氣. 관절이 원활하고 인대가 유연하며 마음이 조화된 사람에게는 도인법을 사용하여 기운을 운행시키고...
大感論	...余私異之, 竊內怪之, 獨覲獨視, 安心定氣, 久而不解 ...이상하고 괴이하게 생각되어 홀로 눈을 감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한다. 마음을 편안하고 기를 집중시키려고 하였지만 오랫동안 안 풀리지 않았고...
	心有所喜, 神有所惡, 卒然相感, 則精氣亂, 視誤, 故惑, 神移乃復 마음으로는 좋아하지만 정신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기자가 갑자기 만나면 정기는 혼란해지고,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데...

4. 心包 意味의 心

心包의 의미로 사용되는 '心'字이다. 『素問』에서 心包의 의미로 사용된 '心'字는 총 8개이다[1]. 『靈樞』에서는 29개의 문자를 心包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素問』과 비교해보면 3배 이상 많은 '心'字가 心包로 사용되고 있다.

心包는 三焦, 命門과 함께 유무형의 논쟁이 있는 장기이다. 무형의 장부로 보는 관점으로는 『難經』, 孫一奎가 있으며, 유형의 장부로 보는 관점으로는 張介賓이 있다. 이처럼 心包는 역대 의가들이 心包를 하나의 독립된 장기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지만, 心包가 心臟의 바깥을 둘러싸서 心臟을 보호하는 생리적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1].

'心'字가 心包를 의미하는 경우는 수궐음심포경에 속한 大陵血, 勞宮血이 기술된 문맥에서 사용될 때이다. 그리고 少陽과 心主가 표리관계를 이룬다는 말은 手少陽三焦經과 手厥陰心包經의 臟腑相通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心主가 手厥陰心包經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心主'의 어휘가 '心包'를 의미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즉, '厥陰', '心主', '大陵', '勞宮' 등과 함께 쓰여진 문장에서 '心'字는 心包를 의미한다. '心'字가 心包를 의미하는 문장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心包 意味의 心

편 명	내 용
九鍼十二原	陽中之太陽, 心也, 其原出於大陵, 大陵二 양중의 태양은 심포이다. 그 기원은 대릉혈에서 나오고...
本輸	腋下三寸, 手心主也, 名曰天池 겨드랑이 삼촌 아래는 수궐음심포 자리로 천지혈다. 心出於中衝, 中衝, 手中指之端也, 爲井木 심포경은 중충혈에서 나온다. 중충혈은 손가락 중지 끝에서 나오며, 정혈과 목혈이 된다
終始	...脉口一盛, 病在足厥陰, 厥陰一盛而躁, 在手心主... ...한 배가 더 크면 병은 족궐음간경에 있다. 팔음이 한 배가 더 크면서 조맥이 나오면 병은 수궐음심포경에 있고...
經脉	...下循膈內, 行少陰, 心主之前 ...겨드랑이 아래로 나오고 상박의 내측을 따라 내려가 수소음심장경과 수궐음심포경의 전면을 따라...
	...下循膈內後廉, 行手太陰心主之後... 아래로 내려와 겨드랑이 아래에서 나오고 팔 안쪽 뒤 모서리에서 수태음폐경과 수궐음심포경의 후면을 따라...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脉, 起於胸中, 出屬心包絡, 下膈, 歷絡三焦 수궐음심포경의 경맥은 흉중에서 기시하며 심포락에 속하고 횡격막을 뚫고 내려가...
	...入缺盆, 布膻中, 散落心包, 下膈循屬三焦 ...결분으로 들어가 단중에 펼쳐지고 심포에 산포되고 연락하고 횡격막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 삼초에 속한다...

	手心主之別, 名曰內關, 去腕二寸, 出於兩筋之間循經以上, 繫于心包, 絡心系 수궐음심포경의 별맥은 내관혈이다. 완관절 상 2촌에서 양근 사이에서 나오며, 갈라져서 수궐음경을 따라 올라가서 심포에 연결되고 심계에 낙한다.
經脉 (계속)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脉, 起於胸中, 出屬心包絡, 下膈, 歷絡三焦 수궐음심포경의 경맥은 흉중에서 기시하며 심포락에 속하고 횡격막을 뚫고 내려가...
	...入缺盆, 布膻中, 散落心包, 下膈循屬三焦 ...결분으로 들어가 단중에 펼쳐지고 심포에 산포되어 연락한다. 횡격막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 삼초에 속한다...
	手心主之別, 名曰內關, 去腕二寸, 出於兩筋之間循經以上, 繫于心包, 絡心系 수궐음심포경의 별맥은 내관혈이다. 완관절 상 2촌에서 양근 사이에서 나오며, 갈라져서 수궐음경을 따라 올라가 심포에 연결되고 심계에 낙한다.
	手少陽之別, 名曰外關, 去腕二寸外繞臂, 注胸中, 合心主 수소양삼초경의 별맥을 외관혈이다. 완관절 2촌에서 밖으로 팔뚝을 돌아 흉중에 주입되어 심포와 합한다
其別者, 并經上走于心包, 下外貫腰脊 갈라진 것은 족소음신장경과 병행한다. 위로 올라가서는 심포에 이르고, 아래로 내려와서는 요척을 꿰뚫는다.	
經別	手心主之正, 別下淵腋三寸, 入胸中, 別屬三焦... 수궐음심포경의 경맥은 연액 아래 3촌에서 갈라져 흉중으로 들어가며 각각 갈라져서 삼초에 속하고...위로 올라가 후를 따라 귀 뒤로 나와 소양경과 완골의 아래에서 상합하는데...
經水	手心主外合于澹水, 內屬於心包... 수궐음심포경은 밖으로는 정수와 합하고 안으로는 심포에 속하고... 手心主之筋, 起於中指, 與太陰之筋並行, 結於肘內廉 수궐음심포경의 근육은 기운데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태음의 경근과 병행하여 팔꿈치 내측 모서리에서 결집...
營氣	...循心主脉出腋下臂, 出兩筋之間, 入掌中... ...심포경을 따라 뚫고 겨드랑이 아래에서 나와 팔의 내측을 타고 내려와 양근의 사이에서 나온다. 손바닥 노궁혈로 들어가고...
口問	...太息, 補手少陰心主, 足少陽隨之 ...심호흡을 해서 기를 펴서 내보내고 수소음신장경, 수궐음심포경, 족소양담경을 보고 유침시키며...
脈論	膻中者, 心主之宮城也... 담중이라는 것은 심포의 궁성이고...
禁服	寸口大于人迎一倍, 病在足厥陰, 一倍而躁, 在手心主... 촌구맥이 인영맥보다 1배 더 크면 병이 족궐음간경에 있으며, 1배 크면서 조동하면 병이 수궐음심포경에 있고...
衛氣	手心主之本, 在掌後兩筋之間二寸中, 標在腋下三寸也 수궐음의 심포경의 근본은 손바닥 뒤의 2촌 되는 곳에 커다란 두개의 힘줄 사이인 내관혈이다. 표는 겨드랑이 아래 3촌되는 곳으로...
邪客	...包絡者, 心主之脉也, 故獨無輪焉. ...포락이라는 것은 수궐음심포경의 맥으로, 다른 경맥과 다르게 수혈이 없다.
	心主之脉, 出於中指之端, 內屈, 循中指內廉以上留於掌中... 수궐음심포경의 맥은 중지의 끝에서 나오고 안으로 굽어져서 중지의 안쪽을 따라 위로 올라가 손바닥으로... 其餘脉出入屈折, 其行之徐疾, 皆如手少陰心主之脉行也. ...나머지 경맥의 출입과 굴절, 그 운행의 느리고 빠름은 수소음신장경과 수궐음심포경의 운행과 같이하고...
衛氣	手陽明太陰爲表裏, 少陽心主爲表裏, 太陽少陰爲表裏, 是謂手之陰陽也 수양명대장경과 수태음폐장경은 표리관계가 된다 수소양삼초경과 수궐음심포경은 표리관계가 되며...이것을 손의 음양이라고 한다.

5. 中心 意味의 心

‘心’字는 공간적으로 한가운데 중심을 의미한다. 『素問』에서 中心의 의미로 사용된 ‘心’字는 총 3개이다[1]. 『靈樞』에서 ‘心’字가 중심의 의미로 사용된 문자는 총 5개이다. 『素問』에서 중심으로 활용된 용례는 모두 ‘足心’인 경우이다. 『靈樞』에서는 ‘足心’ 이외 추가적으로 ‘手心’이 사용되고 있다.

‘手心’은 손바닥의 한 가운데라는 의미로 勞宮穴을 의미한다. 勞宮穴은 수권음십포경의 8번째 해당하는 혈자리로 狂證, 躁證, 히스테리, 일사병, 불면증, 急驚風, 중풍, 객혈, 토혈등에 사용하는 혈자리이다[25]. ‘心’字가 中心을 의미하는 문장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中心 意味의 心

편 명	내 용
本輸	腎出於湧泉, 湧泉者, 足心也, 爲井木; 족소음 신장경락은 용천혈에서 나온다. 용천은 족심을 말하며 정혈과 목혈이 된다.
經脉	是動則病手心熱, 臂肘掌急, 腋腫 시동병은 손바닥 가운데서 열이 나고 팔꿈치가 당기며 거드랑이가 붓는데... 腎足少陰脉, 起于小指之下, 邪走足心, 出于然谷之下 족소음신장경맥은 새끼 발가락 아래에서 시작되어 비스듬히 족심으로 달려간다. 연골의 아래에서 나와 내과의...
營氣	循脊下尻, 下行注小指之端, 循足心注少陰, 上行注腎 ...척추를 따라 꼬리뼈로 내려간다. 하행하여 새끼발가락 끝에 주입되며 족심을 따라 족소음경에 주입되는데...
衛氣	其至於足也, 入足心, 出內踝下行陰分, 復合於目, 故爲一周 ...발로 가는 것은 발바닥 중앙의 족심에 들어갔다가 족내과로 나온다. 음분을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눈에서 합해지며...

6. 理性·判斷 意味의 心

‘心’字는 이성적인 사고 활동을 의미한다. 『素問』에서 理性과 判斷의 의미로 사용된 ‘心’字는 총 5개이다[1]. 『靈樞』에서 ‘心’字가 중심의 의미로 사용된 문자는 총 4개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靈樞』의 문맥들은 「邪氣藏府病形」, 「經水」, 「師傅」, 「五色」에 주로 나와 있다. 경맥의 흐름과 관련된 내용,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 오장육부를 살피는 방법, 병전을 색으로 살피는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는 중 과정에서 이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心’字가 理性과 判斷을 의미하는 문장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理性·判斷 意味의 心

편 명	내 용
邪氣藏府病形	...緩甚爲痿癱, 微緩爲風痿, 四肢不用, 心懸然若無病 ...아주 완만하면 위궤이 되고 약간 완만하면 풍위증으로 사지를 쓰지 못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안해서 병이 없는 것 같지만...
經水	黃帝曰 余聞之, 快于耳, 不解于心, 願卒聞之... ...내가 듣고 보니 대강의 내용을 알 것 같지만 알겠으나 완전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師傅	黃帝曰 余聞先師, 有所心藏, 弗著于方... 황제가 말할길 내가 선사에게 들어서 이해하고 간직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으로는 저술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五色	視色上下, 以知病處 以精神於心, 以知往今 오색의 위아래 움직임을 보고서 병이 있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한 때, 정신을 집중하여 질병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합니다.

7. 超越的 意味의 心

‘心’字는 깨달음과 같은 초월적 개념을 의미한다. 『素問』에서 超越的 의미로 사용된 ‘心’字는 총 5개 이다[1]. 『靈樞』에서 초월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逆順肥瘦」에서 사용된 경우이다.

황제가 鍼刺의 이치를 질문하는 내용으로, 학문과 관련된 이성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백의 답변을 통해 보면, 침법의 이치를 ‘성인의 도(聖人之爲道者)’로 정의하고 천지인에 부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心’字의 의미를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이성적인 범위를 벗어난 깨달음의 경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心’字가 성인들의 깨달음의 내용으로 사용된 문장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超越的 意味의 心

편 명	내 용
逆順肥瘦	夫子之間學熟乎, 將審察于物而心生之乎, 岐伯曰 聖人之爲道者, 上合于天 부자의 학문은 폭 익어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물을 자세히 살펴서 깨달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백이 대답하기를 성인의 알은 도로 인한 것으로 위로는 하늘에 병합하며...

8. 星 意味의 心

‘心’字는 星을 의미한다. 『素問』에서 별자리의 의미로 사용된 ‘心’字는 총 1개이다[1]. ‘心’字는 동양 천문체계에 인 28수에서 동방의 별자리 중 5번째에 해당하는 별자

리를 의미한다. 서양의 천문체계로는 전갈자리에 해당된다. ‘心’字가 별자리를 의미하는 내용은 『素問』에서도 실려있는데, 『五運行大論』에서 齡天의 기운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靈樞』에서는 음양으로 하늘을 경계 짓고, 하늘의 음의 영역을 설명하는 『衛氣』편에서 사용된 ‘心’字는 心宿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心’字가 별자리를 의미하는 문장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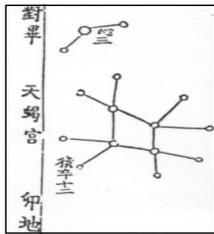


그림 1. 天門類抄 心宿[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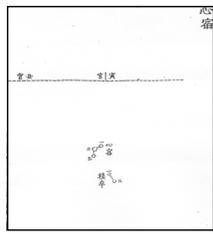


그림 2. 星經 心宿[27]

표 8. 星 意味의 心

편 명	내 용
衛氣	是故房至畢爲陽，昴至心爲陰，陽主晝，陰主夜 그러므로, 방수부터 필수까지가 양이 됩니다. 묘수부터 심수까지는 음이 됩니다. 양은 낮을 주관하고 음은 밤을 주관하는데..

9. 內部 意味의 心

‘心’字는 외부와 상반된 개념으로 내부를 의미한다. 이 부분은 『素問』과 『靈樞』의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素問』에서는 내부의 의미로 사용된 ‘心’字의 용례가 없기 때문이다[1]. 내부의 개념으로 사용된 부분은 한약재 중의 하나인 계심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靈樞』에서 桂心은 한비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탕제를 구성하는 내용에서 나온다. 계심의 ‘心’字를 가운데, 혹은 중심의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재의 활용 부위로 본다면 내부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계심이란 육계나무의 외피를 제거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8]. 계심은 학명이 ‘Cinnamomum verum’인 육계나무의 외피를 제거한 나머지 부분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어휘이다. 이와 반대로 육계나무의 외피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계피라고 하라고 하는데, 흔히 시나몬(cinnamon)으로 불리며 향신료로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계심은 계피

에 해당하는 외피를 모두 벗겨낸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는, 이때 ‘心’字는 외부의 반대 의미를 지닌 내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心’字가 내부의 의미로 사용된 곳의 문장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內部 意味의 心

편 명	내 용
壽夭 剛柔	伯高答曰 用淳酒二十斤，蜀椒一升，乾薑一斤，桂心一斤 백고가 대답하였다. 진한 술 20근, 촉초 1되, 건강 1근, 계심 1근 모두 4종류를 쓰니 약을 썰어 술 속에 담고 숨 1근과 가늘고 흰 베 4장을...

V. 결론

본 연구는 의학뿐만 아니라 자연치유, 명상, 기공, 수행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靈樞』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다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心’字의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心’字는 일반적으로 감정을 의미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靈樞』에서 사용된 총 256자를 분석한 결과, 마음의 의미로 사용된 글자는 총 33개로 대략 13% 정도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靈樞』의 ‘心’字는 9가지 용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心’字는 인체의 장기인 心臟을 의미한다. 256개의 ‘心’字 중에서 129개의 문자가 心臟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둘째, ‘心’字는 신체의 胸府를 의미한다. 256개의 ‘心’字 중에서 53개의 문자가 胸府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셋째, ‘心’字는 ‘心包’를 의미한다. 256개의 ‘心’字 중에서 29개의 문자가 心包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넷째, ‘心’字는 感情으로 마음을 의미한다. 256개의 ‘心’字 중에서 15개의 문자가 마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섯째, ‘心’字는 중심을 의미한다. 256개의 ‘心’字 중에서 5개의 문자가 중심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여섯째, ‘心’字는 두뇌 작용인 이성적 사고를 의미한다. 256개의 ‘心’字 중에서 4개의 문자가 이성적 사고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일곱째, ‘心’字는 깨달음과 같은 초월적 개념을 의미

한다. 256개의 '心'字 중에서 1개의 문자가 초월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여덟째, '心'字는 별자리를 의미한다. 256개의 '心'字 중에서 1개의 문자가 별자리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홉째, '心'字는 내부를 의미한다. 256개의 '心'字 중에서 1개의 문자가 내부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素問』의 '心'字 용례에 관한 선행 연구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素問』과 『靈樞』의 성격을 '心'字의 활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素問』은 동양의학의 기본이 되는 이론적인 개념설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면, 『靈樞』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心'字의 빈도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素問』에서는 '心'字의 활용 빈도가 心臟, 胸部, 感情, 心包의 순서로 되어 있지만, 『靈樞』는 心臟, 胸部, 心包, 感情의 순서로 되어 있다. 心包로 활용된 '心'字의 개수는 『靈樞』는 29개, 『素問』은 8개로 『靈樞』가 『素問』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靈樞』에서 心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치료법의 바탕이 되는 12經脈과 12經筋 등을 설명하는데 '手厥陰心包'를 의미하는 '心主'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즉, 『靈樞』의 내용 구성이 치료적인 방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靈樞』에서는 『素問』에서 사용되지 않은 '手心'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 '手心'은 勞宮穴을 의미하는 것으로 鍼灸治療에 활용되는 자리이다. 치료와 관련된 단어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靈樞』는 치료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靈樞』에서는 『素問』에서 사용되지 않은 '桂心'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 '桂心'은 湯劑에 활용되는 藥材이다. 『靈樞』에서는 『素問』에서 사용되지 않은 단어들인 鍼灸治療와 湯劑治療를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心'字의 용례를 통해서 『靈樞』는 『素問』과 비교할 경우, 치료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素問』은 병리학설과 실제 치료에 대한 기록이 적고 반면에 『靈樞』는 鍼灸와 湯劑治療 등을 중심으로 한다는[3] 내용과 동일한 결론

에 해당된다.

본 연구를 통해 『素問』에서 파악하지 못한 '心'字의 용례를 추가적으로 규명하였으며, 『素問』과 『靈樞』의 내용적인 구성의 차이와 『靈樞』의 해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개인적인 편향된 관점으로 인해, '心'字의 용례 분류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참고 문헌

- [1] 박재용, "『黃帝內經』에서 사용된 '心'字의 용례 분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5호, pp.824-836, 2021.
<https://doi.org/10.5392/JKCA.2021.21.05.824>
- [2] <https://www.zdic.net/hans/%E8%82%89>, 2021. 3.11.
- [3] <https://medicclassics.kr/books/162/volume/82>
- [4] 나창수 외, *한의학총강*, 의성당, 2001.
- [5] 윤은경, "한국 한의학의 치유개념에 관한 고찰," 의료인문학, 제42호, pp.139-140, 2020.
- [6] 김민식, *영추-경근의 이론과 족삼양-족삼음지근에 대한 연구*, 세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7] 정성호, *영추 경맥편의 소장주액에서 액의 의미에 대한 고찰*,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8] 노진우, *영추-오색에 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9] 성현호, *靈樞經脈 太陽經-少陰經의 病候와 傷寒論 太陽病-少陰病의 상관성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0] 류정아, "靈樞·榮衛生會 漏泄 및 素問·風論 漏風, 泄風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22권, 제1호, pp.179-190, 2009.
- [11] 김오영, *황제내경 영추 주요 혈위의 허실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병증 치료 경혈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12] 전학수, *영추경의 사혈요법에 대한 고찰*,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13] 김민식, "영추-경근의 기본자세에 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제37권, 제1호, pp.1-13, 2020.
- [14] 정창현, "靈樞·本神편을 통해 본 정신 기능의 발생과

- 층차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제33권, 제1호, pp.197-205, 2020.
- [15] 정해진, “영추·경맥편 수태음폐경 유주의 한글번역에 대한 고찰,”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제33권, 제3호, pp.114-120, 2016.
- [16] 정창현, “靈樞·九鍼十二原의 夫氣之在脈也구절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회지, 제27권, 제4호, pp.21-27, 2014.
- [17] <https://en.unesco.org/programme/mow>, 2021. 4.18.
- [18] Michael Loewe, *A Bibliographical Guide,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china and th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China, pp.196-215, 1993.
- [19] Michael Loewe, *ibid*, p.200, 1993.
- [20] <https://en.unesco.org/programme/mow>, 2021. 5. 18.
- [21] 陳廣忠, *中國道家新論*, 合肥: 黃山書社, 2001.
- [22] 박경숙, *內經의 養神의 養生思想 研究*,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3] 한희철, *한의학의 선도의 호흡양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4] https://medicclassics.kr/books/184/volume/5#content_46
- [25]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정담, 2001.
- [26] <https://medicclassics.kr/books/162/volume/90>, 2020.11.18
- [27] 『李純之, 『天文類抄』: 三星中央赤最深下有積卒紅十二三三相聚心下是.一名大火...客星及孛犯天下兵荒
- [28] 김창민 외, *한약재감별도감*, 아카데미서적, 2015.

저 자 소 개

박 재 용(Jae-Yong Bak)

정회원



- 2005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학사)
- 2020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교 원대학교 박사과정(자연치유전공)
- 2021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교 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원우회 대표
- 2001년 2월 ~ 현재 : 延壽自然治癒

冥想院 代表

〈관심분야〉 : 자연치유, 문화콘텐츠, 교육, 명상, 기공, 수행